

# 메가톤급 내우외환... 민주당 '패닉'

# 北 김정일 3기체제 공식 출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공천 내용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연루라는 메가톤급 폭탄이 터지면서 민주당이 '공황'에 빠졌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4·29 재보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물론 재보선 이후에도 정국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연루 파문과 관련,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등 선 굵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기회에 과거 참여정부 등과 관련, 털고 갈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당을 추스르는 한편 재보선에 개질 과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선 일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재보선은 경제 못능, 특권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연차 로비 파

## 정동영 공천 내용 이어 盧 악재에 충격·당혹

### 4·29 재보선 파장 차단 '盧 前대통령과 선긋기'

문의 재보선 이슈화 차단에 나섰다.

또, 송영길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 "불행한 일로, 책임기간 돈을 받은 경우와 그 성격에 대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는 죽어 있는 권력인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충격과 자괴감을 느꼈다"며 "감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예외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하며 대통령 비리관련 특별감찰기구 만들어 사전 예방조사를 강화하고 범법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특

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부의 수습 노력에도 당 내의 분위기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연루 문제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 내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연루 문제 등으로 4·29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승리가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정 대표는 울산과 광주 지역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전략공천지인 전주 덕진, 인천 부평을 공천 마무리 작업에 주력했다.

덕진의 경우 대북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내정하고, 정 전 장관의 불출마 결단을 기다리며 공천 확정을 미루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정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3일째 잠행하며 장교에 들어갔으며 9일째로 예상되는 당무회의의 공천확정 이후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 측 핵심인사는 "예기치 않은 노 전 대통령 문제까지 터지면서 민주당 진영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정 전 장관은 어떠한 결단도 민주당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막

### 당·군부 요직 측근 배치

### 통치체제 안정 꾀할 듯

북한은 지난달 새로 선출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를 9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3기 집권체제를 공식 출범한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은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에 대한 인사를 통해 그의 통치체제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3년간 '유혹통치' 체제를 유지하다 1998년 10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열었으며 2003년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2기체제가 만들어졌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뒤 올해 1월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에서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등을 포함해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은하2호' 로켓발사 동영상상을 7일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 伊 강진 사망자 250명으로 늘어

## 사흘째 구조작업... 여진 이어져 피해 확산

강력한 지진이 이탈리아 중부를 강타한 지 사흘째인 8일 사망자 수가 250명으로 늘어났다.

이탈리아 시민보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강진의 피해가 가장 심한 아브루초주(州)의 주도 라퀼라와 그 주변의 2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포함해 모두 250명이

이 라퀼라를 강타한 이후 7일 저녁 규모 5.6의 지진을 포함해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강진으로 5만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친지나 친척들을 찾아 수도 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옮겨 라퀼라 시내와 외곽의 야외에 임시로 조성된 20여곳의 천막촌에는 1만7천여명의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무등산 조례' 상임위 배정 논란

○"무등산 조례안'의 상임위 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시민·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등산 관리와 관련된 조례' 모두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교차위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왜 이번에 발의된 조례만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으로 행정위가 맡게 됐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제 제기했다. '보존'과 '개발' 중 처음부터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박원 의장은 "발의 제안 과정에서 '관광'이라는 표현이 있어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인 행정위에 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정용화 비서관 道공무원 대상 특강

○정용화(사진) 청와대 연설 기록비서관이 9일 오전 10시 광주 시 북구 매곡동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남도청 및 일선 시군 소속 5급 이상 간부 5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과 광주·전남'을 주제로 특별강연한다.

정 비서관은 이날 강연에서 G-20 주요외제와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와 광주·전남의 발전



방향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또 남해안 선벨트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에 대해 발표 계획이다.

### 이석형 합평군수 잇단 '강연정치'

○전남도지사 도전설이 나오고 있는 무소속 이석형(사진) 합평군수의 최근 행보가 활발하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신의 취락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에서 잇달아 '강연 정치'를 펴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7일 오후 순천과 여수에서 릴레이 강연을 열고 "큰 정치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다. 3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 광주 북구의회 김순례의원 사직

○광주 북구의회는 8일 제3차 뇌물공여죄로 수감 중인 김순례 의원(68·여)이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내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이날 북구청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골원)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의 부인 주모(56)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김 의원의 사직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문혜옥(46·여) 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 "盧 전대통령 거역수수 법·정치적 책임 논해야"

### 천정배 민주당 의원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사진)은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진실을 토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착각하고 참담하다. 국민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과문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박 회장의 돈이 권 여사에게 간 것은 확실해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적절하느냐 여부와 법률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든, 무슨 용도로 돈을 주고 받았느냐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도부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4·29 재보선에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가 무소속이 돼 민주당 공천후보와 겨루는 사태야말로 정권 심판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공인중개사 박문각

## 2009.V-VIP회원안내

주말반	토요일 15~22시	공법	개론	일요일 9~13시	민법
월	화	수	목	금	토
공법	개론	민법	세법	민법	중개사법
이중현 교수	강호 경제대법	김영웅 2차	김유철 회계사	김영웅 2차	신경민 교수

"전국 최다,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개강 **평일반 현재접수중!** 주말반 4월18일(토) **529-8838** 위치:윤임동 광안고가 옆 삼배신원 2층

## 경 찰

순경공채	특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1차: 966명 2차: 214명</li> <li>여-1차: 40명 2차: 47명</li> <li>101단-1차: 120명 2차: 1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의경 특채 240명</li> <li>경찰행정학과 특채 100명</li> <li>경찰 특공대 특채 38명</li> </ul>

www.gmega.co.kr 226-5050

# 대호은돌침대/가사갤러리

## 광주신세계백화점 입점기념 특가판매

이제 대호은돌나라 돌침대를 광주신세계 지하 1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침대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돌침대-대호은돌나라!! 부모님 호도선물로 최고입니다.

Ondolnara 신세계매장: 062-360-1902 본사: 031-768-3259 www.ondolnara.co.kr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26번지